

따라서 교수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재학생 모두들은 각각 전공분야를 더욱 철저히 연구하고 전수하여 그 가르치고 습득하는 바를 그리고 생각한 바를 이 학보를 통하여 발표되어지므로 서로가 알고 유익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고려신학보 8호가 이렇게 출간됨을 여러 학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神學과 哲學의 關係

이 보 민 (Th. D)

신학 과 철학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역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역사상 철학(서양철학)과 신학이 어떻게 상호 대립되는 위치에, 혹은 상호 협조적인 위치에 있어 왔는가를 논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1. 변증가(Apologetists)와 영지주의(Gnosticism)

초대 기독교가 변증가들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로마제국이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뿐 아니라, 차츰 철학적인면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배격을 당하게 되자 교회는 이들 박해자들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원리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우선,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배척한 대표적 인물로는 의사이며 철학자이었던 Celsus 를 들 수가 있는데, 그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의 초점은, 기독교가 바울의 주장대로 지상의 악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면 어떻게 아직도 악이 이 지상에 팽배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지상의 악을 완전히는 제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만족스런 수준에서 이 악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로마제국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로마제국에 복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神의 成肉身은 기독교인들 자신이 말하는 신의 불변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신이 이세상에 내려 왔다 하더라도 문제는

왜 하필이면 보잘 것 없는 무명의 한 구렁이에 그 신이 내려 왔겠는가 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에 내려왔다는 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못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이 세상은 아직도, 계속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 그 악을 약간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로마제국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세상의 가장 보편 타당한 현상(악이 팽배하고 있다는)을 설명해 주는 보편 타당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독교는 하나의 단편적인 미신적인 생각에 의한 것 뿐이라고 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곧 그 당시에 기독교를 철학적인면에서 박해하는 자들이 가지는 지배적인 생각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변증가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는 Justin Martyr (± 110 ~ 165)이다. Justin의 변증가로서의 입장은, 기독교 진리를 보편 타당한 것으로 변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철학적인 공격이 上述한대로 기독교 진리의 일반성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Justin은 말하기를, 기독교만이 유일한 철학이라고 하였다. 이말이 그렇다고 기독교가 철학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가 기독교가 철학이라고 한 것은 기독교가 결코 미신이나 마술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며,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보편 타당한 진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모든 진리는 기독교에 속하며, 참된 말을 하는 자는 모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 4 복음의 Logos에 대한 서술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리스도 속에 나타나신 Logos는 바로 道成人身의 하나님이신데, 이 Logos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Logos가 나타나심으로 모든 인간이—그가 교육을 받은 자든 아니든—참진리의 증진함을 맛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깐,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보편 타당한 것으로써 만일 세속철학에서 바른 진리가 얻어지면 그것은 곧 기독교에 속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Parmenides의 “불변하는 존재”는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上述한대로, 변증가는 우선 기독교에 대한 외부에서의 철학적인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차츰 그 의

부에서부터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지주의(Gnosticism)의 움직임에 기독교가 진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다. 영지주의 움직임이란 본래 일종의 혼합된 종교적 움직임으로서 현실세계를 굽이 낮은 下流의 神이 만든 악의 세계로 무시하는 근원적인 경향을 띄었다. 이 움직임은 기독교 교리에도 파고들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기독교안에서의 영지주의자로서는 2C 중엽에 로마교회에 속해 있던 Marcion이 가장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구약을 배격하고 신약중에서도 바울적인 요소의 부분만 인정하였다. Marcion이 대표하는 기독교 내부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상호 배척되는 것으로 여기고 구약의 神이 창조한 악의 세계로부터의 해방은 몸으로 탄생하듯이 보이는 구원자(Savior)이신 신약의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

이런 영지주의 움직임에 반대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한 변증가들로서는 Irenaeus(?)와 Tertullian(110-222) 등이 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와 더불어 교회의 권위를 확립함으로써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주장을 배격하였다. Justin과는 달리 이들 후기 변증자들은 세속철학적 사상과 기독교 교리간의 일치점보다는 오히려 상이점을 지적함으로써 기독교를 수호했다고 볼 수 있는데, Tertullian이 예루살렘과 아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은 그런뜻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면을 가진다고 하겠다.

2. 신Platon주의와 기독교신학

변증가 시대가 지난후에 기독교신학과 철학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新Platon주의가 후에 Augustine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일 것이다.

新Platon주의란 Platon의 철학사상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Plotinus(204-269)로써, 그의 중심 사상은 신은 만물의 존재의 기원인 단일성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적 단일성에서 만물의 다양성이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가 신적인 기초위에 있고, 이 물질과 신의 사이에 영혼이라는 제 3의 양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Platon의 철학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한 것이다. 신, 영혼, 그리고 물질이上下 관계 속에 놓여있다고 보는 것으로써, 이러한 종교적인 철학 사상은 기독교신학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 특히 Augustine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Augustine(354-431)이 Mani의 2원론에서 벗어난후 회의주의에 헤메고 있을 때에 바로 신 Platon 주의적인 神사상의 도움으로 확고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신 Platon 주의에서 나타나는 신의 확실성이 모든 회의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신 Platon적인 철학의 도움을 받아 Augustine이 그의 신학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Justin과 같은 변증가들은 철학이 신학에 배치되는 것으로 불필요했다고 말함으로 철학이 넓은 의미로 신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왔다고 한다면, Augustine에서는—대단히 분명한 것은 아니라 할찌라도—신학이 철학의 도움을 받아 확립되는 요소를 엿볼 수가 있다. 즉 철학이 신학의 확립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신학과 철학의 협조 내지는 조화가 Augustine에서 발견된다 하겠다.

환언하여, 신 Platon 주의 즉, 궁극적으로는 Platon적인 철학사상이 Augustine의 신학에 도움을 베풀어 그로인해 철학과 신학의 조화가 그에게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3. 중세철학과 기독교신학(Thomas Aquinas를 중심으로)

Augustine에서 철학과 신학의 조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면 중세의 Thomas Aquinas(1225-1274)에서는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Augustine이 Platon적이었던 것 이상으로 Thomas는 Aristoteles적이었다. Aristoteles의 형이상학이 그의 신학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우선 그의 존재의 증명은 철저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모든 운동의 원인자를 제시함이 그 근간을 이루고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은 그 원인이 되는 운동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다른 모든 운동의 근원이 되는 “움직이지 아니한 운동자”(Unmoved Mover)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신존재 증명의 내용이다. Augustine이 Platon의 사상의 영향으로 신, 영혼, 물질의 차이를 거의 절대적으로 본 반면, Thomas는 Aristoteles의 영향으로 모든 사물의 운동적인면에서의 구원자인 신은 절대적인 다른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대해 정도의 차이를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모든 사물은 신적인 위치를 추구해 나간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이와같이 토마스의 신학에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역시 토마스의 인간론 내지는 윤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토마스의 윤리사상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철저하게 행복추구주의(Eudemonism)적이다. 윤리는 인간의 행복추구에 그 본질이 있으며 神이 곧 인간의 행복이 된다. 神이 선한 것은 다름아닌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Virtue)의 개념 역시 그대로 토마스에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처럼 토마스 역시 인간의 도덕적행위는 지성적인 이성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도덕행위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게되는 것인데, 이런 도덕행위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졌을 때 바로 덕(Virtue)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와 같이 토마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이란 절제를 의미한다. 그것은 곧 인간이 지나친 쾌락이나 지나친 고통을 피하는 신중한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절제라는 덕으로 나타난다. 토마스는 이와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도덕적인 덕의 개념에 기초하여 Augustine적인 덕 즉 의(Justin), 인내(Fortitude) 등을 논하며, 또 그것들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그의 덕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인간적인 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덕에 토마스는 신학적인 덕을 첨가하고 있다. 이 덕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써 하나님 의 은혜에 의해 첨가되는 덕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토마스의 이론체계가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전반부분과 신적이며, 은혜적인 것을 첨가하는 후반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전반부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다루었고, 그의 후반부분에서는 그와 반대로 인간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토마스의 이론체계 속에서 회합철학적인 것이 기독교신학적인 것과 합쳐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철학과 신학은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토마스의 체계에서 가능한 표현이라 하겠다. 즉, 철학이 신학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Augustine 과는 다르게 토마스에서는 신학과 철학은 서로가 도움을 주는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 철학이 추구하는 바가 신학을 통해 완수되어질 수가 있고, 신학은, 또 신학대로 바로 그 철학적인 추구가 있으므로써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되는 것이다.

4.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과 철학

上述한 바와같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철학과 신학은 일종의 통합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신학은 그러니깐 순수하게 성경이 그 학문적인 source가 되지 못하고, 철학적인 제개념을 그 일부로 맞이하게 되었고 철학은 철학대로 순수한 인간적인 이성을 그의 근원으로 삼지 못하고 여러가지 종교적인, 교회적인 표현에 의해 채색되어졌다. 이것이 곧 중세의 철학과 신학의 형편이었다. 개혁가들은 철학에 감염된 신학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초된 순수한 신학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한편 철학 역시 근세 이르면서 인간의 이성에만 기초한 철학을 세우고져 하는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시도를 당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과 철학이 모두 독자적인 순수한 영역을 갖게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개혁가 Luther와 Calvin 등은 사색적인 철학과 교회의 전통에서부터 벗어난 성경에 입각한 신학을 주창한다. 특히 Calvin에게서 우리가 특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인간의 이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에서 출발하여—이것은 곧 인간적, 철학적 요소의 배격을 의미함—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의 신학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손상되었으며, 그 부패한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바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인간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이 얻어질 수가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학과 철학간의 상호협조는 그러므로 개혁가들에 의해 전적으로 배격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신학이 철학을 도구로 삼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철학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것이므로 신학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신학의 정립에는 철학이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혁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한편, 철학은 그러면 어떠한가? 예를 들어, 고전적인 합리주의의 거두 Rene Descartes (1596-1650)은 교회적으로는 평생을 로마 카톨릭 교회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철학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는 체계를 세우고져 했다. 어떠한 외부적인 권위에 의해 무조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자체로서 확실한 학문적 체계를 그는 세워보고져 했던 것이다. 고전학문이나 신학의 주장이 실제와 부합이 되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또한 자신이 과거에 확립했다고 믿던 체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수시로 판명되는 것을 직시하면서, 확실한 학문적 체계를 추구하고져 했던 것이다. 소위 그의 “방법론적 회의”는 그러니깐 회의를 위한 회의라기 보다는 아무리 회의를 하려도 회의할 수가 없는 확실한 근거를 찾는 데에 그 참뜻이 있다고 하겠다. 모든 것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그 의심의 사고를 하고있는 자신이 존재함은 의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며 또 동시에 그의 학문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Cogito)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Ergo Sum)는 바로 신적인 요소, 즉 신학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된 철학의 시발점인 것이다. 인간의 이성만이 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물론, Descartes에서도 볼 수 있는 데로, 철학이 신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성이 그 척도가 되어 신을 논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신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신에 대한 논의는 특히 Immanuel Kant (1724-1804)에 의해 많이 되어진다. 경험되어지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인식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더라도, 즉 신이 경험될 수가 없으므로 논의조차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시작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의 도덕적인 이성인 신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로 결론 짓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후반부분에서 부각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Kant가 신학을 그의 학문적인 후기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가 말하는 신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내의 신이며, 그의 철학이 필요로 하는 개념일 뿐이지 성경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Descartes나 Kant에 있어서는, 그러니깐 철학이 신학을 배격하고 자체의 독립적인 영역을 이루려고 했음을 볼 수가 있다.

다시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던 신학과 철학의 상호협조는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개혁가들과 또한 합리주의자들을 포함한 근세의 철학자들에 의해 양면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신학과 철학은 독자적인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5. 현대의 신학과 철학의 상호관계

上述한대로, 신학과 철학의 결별은 더이상 철학과 신학이 서로 영향을 입히지 못했다는 뜻인가? Kant에서 약간 엿보였던 것처럼 서양철학에서는 결코 신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배제된 적이 없다. Kant가 계속해서 신을 논하는 것은 그의 경건한 가정적인 배경을 불문에 부치더라도, 철학이 직접, 간접으로 기독교신학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함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Hegel에게서도 신적인 요소는 계속 논의되고 있다. Søren Kierkegaard (1813-1855)이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라고 하지만 그의 관심은 참된 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하는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합리적이며 관념적인 Hegel의 철학세계가 인간 개인의 의미를 객관화 또는 일반화를 통해 말할 시킨다고 주장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은 철저히 예외적이고 개인에게 대해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 Kierkegaard의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그가 성경의 하나님을 논했으므로 신학과 철학의 협조를 그

의 체계에서 폐한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되어는 않는다. 성경에서 얻어지는 학문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기독교신학과는 달리, 단지 성경에서 얻어지는 “힌트”를 재료삼아 그의 철학을 그가 생각하는 데로 세워 나갔을 뿐이다. 다시말하면 Kierkegaard은 신학을 그의 철학에 의식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고 보다는 기독교신학의 영향 아래 살고 있었던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Feuerbach, Marx 등의 철학자들이 기독교신학을 배척하는 자들이라고는 하겠으나 기독교의 신이 그들의 고려의 대상에서 그래도 제외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신학이 철학에 큰 영향을 계속 미쳐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던 Friedrich Nietzsche(1844-1900)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의 철학적 학문의 대상 내지 내용은 바로 기독교 신학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의 초인(Ubermensch)의 개념도 바로 기독교의 윤리가 노예적인 윤리라는 결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약한 인간, 노예적인 인간이 주인계급에 대한 원한(Ressentiment)을 직접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선(good)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간접으로 나타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라고 니체는 주장한다. 노예적 인간을 배척함이 바로 그의 주장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니깐 그에게 있어서도 기독교신학이 그의 철학적 활동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데로 철학은 비록 신학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배격한 후에도 여전히 그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Martin Heidegger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심, 죄의식, 타락 등과 같은 용어들은 서양의 세속철학이 기독교신학의 영향권을 완전히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은 어떠한 형편에 있게 되었는가? 루터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개신교신학은 본래의 의도대로 철학과는 무관하게 계승되어 왔다. 그러나 신학자들 가운데는 철학의 영향을 입어 새로운 신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들이 나왔다. 예를들어 Friedrich Schleiermacher(1768-1834)는 신학자라고 불릴 수 있으면서도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자로 여겨진다. Kant와 같이 Schleiermacher 역시 자연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인식의 형식은 인간

의 이성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Kant와는 다르게 Schleiermacher에 있어서는 도덕과 종교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가 도덕의 범주에서 취급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에 대한 인간의 의지함의 느낌이라고 하는 별개의 영역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신의 존재에 대해 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종교가 신과 인간간의 관계에서 보아질 것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내부의 문제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범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다. 예수는 결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지 그에게서 인간의 무한한 자에 대한 절대적 의지함의 의식이 나타났을 뿐이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Schleiermacher가 비록 신학자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종교적인 영역을 국한 시킴으로써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신학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출발점을 두는 철학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Ernst Troeltsch (1865-1923) 역시 종교를 Kant가 윤리의 기초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W. Dilthey가 역사학의 기초를 추구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루려고 했다. 종교가 가능한 것은 인간이 종교적인 apriori를 지니기 때문인데, 이것은 Kant가 윤리를 인간의 도덕적 이성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Troeltsch에 있어서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가 철학적인 방법에 의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거두인 Albrecht Ritschl(1822-1889) 역시 성경을 철학의 범주에서 이해하고자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즉 그에게서 발견되는 개인적 윤리주의(Personal ethicisim)는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Kant적인 윤리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존주의 신학의 거두 Rudolf Bultmann 역시 하이데거적인 철학을 성경적인 message의 연구에 도입한 자이다. 신약의 메세지는 결코 객관적인 지식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객관화 될 수 없는 실존적인 지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적인 인간실존의 이해가 그의 신약의 의미 파악에 관건이 되고있다. 즉 주님으로 표현되는 신약의 신은 다름아닌 인간의 실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바의

기초가 되는 분일 따름이다. 즉 전적인 타로서의 신은 그가 우리의 객관적인 지식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결단의 대상으로 나타나며 이런 전적인 타로서의 신은 곧 인간이 그들 상호간에 객관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를 타로 여기는 실존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해주는 분으로 여겨진다. 다시말해서, 실존주의적인 인간이해가 곧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Bultmann의 신학은 그러므로 실존주의 철학에 의해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하겠다.

Paul Tillich 역시 실존주의 신학자로서 다분히 하이데거의 영향을 입고 있다. 그는 소위 Method of Correlation이라고 하여, 신학은 변증학적인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철학이 제시한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들어, 신론(神論)은 다름아닌 철학적인 문제인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Ontological Question)에 대한 대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충격 앞에서도 어떻게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적인 철학에서의 존재론적인 질문이라는 것이다. 이 질문은 바로 죽음을 포함한 비존재(non-being)를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존재 그 자체에 의해 해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 존재 그 자체(Being itself)가 곧 신이며 성경의 신은 그분이 비록 창조주, 인격신, 삼위일체신 등의 표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존재 그 자체라는 범주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신에 대하여 나타내는 표현들은 모두가 상징(Sywbol)적인 것들 뿐이기 때문이다. Tillich이 말하는 존재 그 자체는 하이데거의 존재(Sein)에 대응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깐 Tillich이 그의 “상호관련성의 방법”(Method of Correlation)에 따라 철학에 해답을 주는 신학을 창안해냈다고 주장하지만,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신학적 해답으로 주어진 존재그자체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자신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신학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얻어지는 철학적인 산물일 따름이다. 요컨대, 신학자 Tillich에 있어서도 신학은 하이데거적인 철학에 의해 그 방향이 새로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실존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Jürgen Moltmann은 그러면 다시 철학이 없는 신학으로 돌아왔는가? 그는 Bultmann적인, 즉 실존적인 신학 message, 특히 부활의 message의 이해는 부활의 올바른 역사성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난한다. 이것이 곧 부활의 정통신학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인가? 부활의 역사성이라 함은 결코 부활이 역사속에서 일어났다함이 아니요 역사로 하여금 참 역사적이게 해 준다는 뜻이다. 즉 역사는 그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대로 역사위에 홀로 계시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그 의미가 주어진다 고 볼 수도 없으며,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실존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역사성으로만 이해되어도 안된다. 역사는 또한 범신론자들의 생각처럼 역사가 그 자체로써 하나의 System으로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어서도 안된다. 다시말하면 역사는 이미 그 의미가 밝혀진 것으로가 아닌 “말세론”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역사란 그 자체로써 아직 완전히 해결되어 지지아니한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부활은 곧 역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바른 역사의 의미를 갖도록 했다고 하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이다. 실존주의 신학이 인간의 의미를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내부에서 발견되는 바로부터 보는 실존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Moltmann의 신학은 Ernst Bloch과 같은 신막스주의 철학에 영향을 입었다고 하겠다. 즉 그들은 인간의 의미를 인간 존재내부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아직아님” 즉 인간의 “되어짐”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역사의 上溯한데로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했던 것이다. 요컨대, 실존주의 신학을 배격하는 Moltmann 역시 그의 신학을 또 하나의 다른 철학적 움직임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그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철학들(실용주의 철학, 언어 철학 등등)의 영향을 입어 새로운 형태의 신학을 세워나야 한다.

6. 결 론

철학과 신학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본란에서 우리는 신학과 철학을 따로 따로 개념적으로 분석해 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

관계 역시 정의해 보지 아니 하였다. 그보다는, 이들 둘이 역사상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져왔는가를 간략하게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로 철학과 신학은 본질적으로 어떤 상이점을 갖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신학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연한 차이가 있는 두개의 학문이지만 역사상, 심지어는 상호보완적 관계까지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신학과 철학을 통일시켜 보고자 하는 중세신학자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인데, 후에 종교개혁시대에 개혁가들에 의해 배격을 당하게 되었다. 개혁시대 이후 신학과 철학은 서로 헤어져 다른 길로 가는 듯 했으나 서양사상의 이 두 거대한 산맥은 서로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이성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신학을 구축하고자하는 신학자들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개혁시대 이후, 성경에 입각한 참 신학은 철학에 감염됨 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통신학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Chales Hodge, Herman Bavinck, Klaas Schilder 등의 정통신학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정통신학자들에게는 철학은 전혀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대 속에서의 정통신학은 그자신의 정통성을 옹호, 유지함에 못지 않게 인간이성에 의해 시도된 다른 신학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려야하는 과업을 지니는 것이다. 모든 다른 신학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현대속에서 정통신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신학에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철학을 올바로 이해 해야한다. 그러니깐, 한마디로 말해 정통신학자체는 하나님의 계시위에 서서 인간적인 철학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현대의 정통신학을 유지하는 정통신학자는 철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입각하여 올바른 위치에 서있지 못한 신학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철학의 영향을 받아왔고, 또 철학 역시 신학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로인해 직접, 간접의 영향을 받아왔던 것인데, 현대의 모든 신학자들 특히 정통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